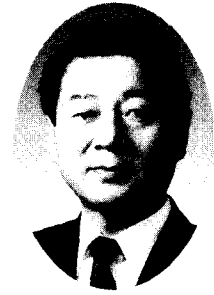


韓·中修交 5년의 評價와 展望



柳世熙

漢陽大 亞太地域學大學院長

修交 이후 지난 5년 동안 韓·中 두 나라의 관계는 꾸준히 발전해 왔다. 점수로 치자면 B학점(80점)은 충분히 된다고 보며, 그런대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현재 두 나라 사이를 걸끄럽게 만드는 이렇다할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이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우선 經濟關係에서 보더라도 작년의 두 나라의 交易量은 200억 달러로 수교 이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함으로써 中國은 韓國의 세번째, 韓國은 中國의 여섯번째로 큰 交易國이 되었다. 수교로 投資保護協定이 체결됨으로써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급속히 늘었고 그 결과 中國은 韓國의 제일 큰 海外 投資對相國이 되었다. 學術·文化·觀光 등 여러 분야에서 두 나라간에 왕래하는 사람들의 수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수교 5년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만드는 또다른 주요 요인은 經濟關係의 신장에 비교할 수는 결코 없지만 政治關係에 있어서도 그런대로 꾸준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두 나라의 頂上을 위시하여 總理와 外務長官 등의 閣僚, 議會와 司法部 수뇌급 인사들의 상호방문과 접촉이 빈번히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표면적 현상이고 보다 중요한 사실은 韓國에 대한 中國의 정치적 태도에 있어서의 변화이다. 즉, 政治問題에 관한 한 과거에 中國은 무조건 北韓 일변도의 입장을 취했었고 지금도 다소 그 타성이 남아 있기는 하나, 수교 이후 특히, 최근에 와서 南北韓에 대한 中國의 태도는 꽤 공정성과 균형 감각을 나타내려고 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北核 처리과정에서 北韓의 일탈을 막으려 했던 노력이라든지, 北韓의

對南韓 기피에 대해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직접 당사자인 南北韓이 주도해야 된다는 주장이라든지, 北韓의 요구에 따라 관문점으로부터 中國 代表를 철수시키면서도 南北韓간에 새로운 평화체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停戰體制는 계속 유효하다는 해석이라든지, 北韓 潛水艦의 동해안 침투에 대한 우려 표명과 臺灣 핵폐기물의 北韓으로의 移送에 대한 불쾌감의 표시라든지, 黃長燁 비서의 망명처리과정에서 보인 국제관계의 존중 등이 그 실례들이다.

물론 이와 같은 中國의 태도변화는 지속적인 中國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中國이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부응하지 않는 北韓의 好戰的 態度에 대한 불만의 표시 또는 견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비록 美國과 北韓 관계의 개선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면서도 美·北韓關係의 급진전에 대비하려는 중국식 포석의 일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작용한 또 하나의 요소는 韓·中 두 나라의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의 유사성이 아닌가 생각한다. 즉 비록 체제는 다르나 中國의 現實主義的 實用主義와 漸進的 接近方式은 韓國의 合理主義的·技能主義的 接近方式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다.

수교 이후 韓·中關係가 매우 긍정적으로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展望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經濟關係만 하더라도 이미 홍콩의 歸屬으로 中國의 位相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中國이 韓國을 필요로 하는 정도보다 韓國이 中國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훨씬 커짐에 따른 韓國의 對中 依存度 심화가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政治關係에 있어서는 北韓要素가 역시 여전히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인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韓·中間 體制의 차이로 인한 對北韓 인식상의 차이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과 北韓體制의 붕괴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韓·中關係에 가장 큰 갈등요소로 될 것임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4자회담(예비회담 포함)의 진전과정에서 中國이 보일 태도는 韓·中 政治關係의 장래를 예측케 할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中·美關係와 中·日關係가 어떻게 진전하는가에 따라 앞으로의 韓·中政治關係도 영향을 입을 것이다. 특히 美國은 현재 政治·經濟·安保·軍事 등 모든 면에서 韓國에게는 가장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美·中關係가 나빠지면 韓·中關係도 본의 아니게 불편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볼 때 中國이 國力의 伸張에도 불구하고 霸權을 추구하지 않고 平和 5원칙을 유지하는 한 韓·中關係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